

# 진짜사장·진짜교섭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테크젠

## 활 시위는 떠났다. 이제 우리 계획대로 간다 금속노조, 현대차에 "4월 22일 울산에서 교섭하자"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 현대차그룹 본사를 향한 규탄과 항의의 결의대회가 4월 15일 진행되었습니다.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2만여명 조합원중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글로벌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지회 간부들이 금속노조 위원장과 함께 단체요구안과 항의서한을 들고 본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관계자 누구도 직접 금속노조 요구안과 항의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년 넘게 한결같이 하청 바지사장 뒤에 숨어있는 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TOP을 지향하는 선진 대기업이지만, 노사관계는 너무 후진적이어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 현장이야기 6 **자회사에 노사관계가 있거나 한가? 원청교섭으로 바로잡자**



현대모비스 천안공장에 금속노조 깃발을 들어올린지 7년이 흘렀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하나의 공장에 3개 하청업체가 인력파견으로 생산라인을 운영중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징후가 보이자 3개 업체가 갑자기 통폐합을 하더니 생산전문사라는 이름의 1개의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뒤에는 전국의 현대모비스 공장의 생산전문사들이 통폐합하여 모트라스, 유니투스라는 거대 업체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연일 수도 없고, 하청업체의 선택과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기획작품이고,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으려는 술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자회사로 가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정규직이 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이 향상되며, 하청업체보다 고용이 안정된다는 장미빛 미래를 펼쳐보였습니다. 하지만 허구이자 사기입니다.

같은 날,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정의선에게 우편으로 <2026년 단체교섭 요청 및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원청교섭 상견례를 4월 22일 14시, 현대차울산공장 동행룸에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노측 교섭위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공문에는 현대차그룹 노조단위중 가장 빠르게 요구안을 확정된 현대차 원청교섭 단위(현대차 울산,아산,전주,남양, 현대그린푸드 경기,전주,울산, 현대차판매연대 서울, 부산양산, 현대차보안 등 10개 지회 1,675명)의 교섭요구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요구안은 크게 전체 원청교섭을 요구한 단위의 공통요구안과 직무,직군별 요구안(보안, 식당, 판매 노동자 등)으로 구분되고, 조합활동부터 임금, 고용안정, 노동안전, 복지 등 현대차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노동조건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자본이 뒤에 숨어 노동자의 요구를 뭉개고 가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해집니다. 현대차 자본은 교섭 회피야말로 노사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는 경험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현장은 여전히 현대모비스의 아이템 수주로 인해 자금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승인없이 설비에 따른 필요인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노동강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위험설비 개선 요구에 모트라스는 돈이 없다며, 현대모비스 승인없이 진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흔히들 모트라스를 '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모회사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우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지휘없이 모트라스가 어떠한 것도 진행할 수 없는데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현대모비스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는 개정 노조법을 통해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본의 힘에 짓눌려 자회사로 끌려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 때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교섭과 투쟁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정우리 / 현대모비스천안지회 지회장